[산업]
재계
4050 총수 시대
연말 통큰 조직개편
06

metro 경제

5일 Market Index
코스피 2267.52 (0.00)
코스닥 773.70 (0.00)
금리(국고채 3년) 2.08 (+0.02)
환율(원·달러) 1130.40 (+0.50)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취업난 뚫은 2030, 전·월세 전전 4050

소득있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어렵다

신혼부부에 쏠린 부동산정책
임대주택도 취준생 위주지원
무주택 중년도 혜택 제한 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사회초년생 임 모씨, 직장생활 6년차 독신 김 모씨, 20년 무주택자 황 모씨 부부'.

이들을 위한 집은 어디 있을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거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20~30대 사회초년생은 임대주택조차 문턱이 높고, 40~50대 중년 부부는 십 수 년을 전·월세로 전전해도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기회가 적다. 무주택 서민임에도 소득이 있고 직장 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 취업난+주거난…'청년은 웁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정부가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891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첫 분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다. 자금 여건에 따라 분양·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고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전국에 7만 가구 공급하기로 계획했다가, 9·21 공급 정책에서 3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아홉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 지원 혜택이 신혼부부에게 쏠리자 20~30대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 나이가 어린 청년이나 30대 초중반의 독신 가구에 대해선 주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은 평균 1.1년 동안 취업 준비에 월 평균 29만원을 쓰고, 사회초년 직장인은 학자금대출 등 월 평균 61만원의 빚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겨우 뚫고 나와선 주거난에 허덕인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청년(만 20~34세)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평균(57.5%)에 한참 못 미친다. 아울러 지하·반지하·옥탑의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반 만에 취업에 성공한 임모씨(27)는 "광주에서 상경해 취업 준비하는 동안 서울 외곽 지역의 허름한 옥탑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며 "아르바이트도 못할 때면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셔서 민망했는데, 정작 취업해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 또 비슷한 곳에서 살게 됐다"고 말했다.

가을에 핀 장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정원박람회를 찾은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이어 그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위주로 물량이 많고,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라 84점 만점에 10점도 안 나오는데 당첨이 되겠느냐"며 "주위에 결혼한 형, 누나들은 신혼부부 혜택이 많아졌다고 좋아하는데 취업 초년생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기대도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3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신동빈, 석방 사흘만에 출근… '뉴롯데' 정상화 탄력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과 동시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해외 투자와 지주사 전환 등 그룹 내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약 8개월간 수감생화도 지칠 법도 하지만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8일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신 회장은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지난 여름 서울구치소에서 다른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더위와 사투를 벌였다. 이때문에 체중이 구속 전보다 10㎏가량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8개월 총수 부재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멈춰선 그룹의 대규모 투자 등 경영 현안을 챙기기 위해 곧장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 회장은 출근과 동시에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해 4개 사업 부문(BU) 부회장단을 주축으로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회의를 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총수 부재로 밀려 있던 그룹 차원의 각종 투자 등 그룹 현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투자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과 동남아시아 유통 및 제과 업체 인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중국 롯데마트 사업 매각 등 해외 사업 전반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 완성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과 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 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3면에 계속〉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오션 블루·라벤더 퍼플… 스마트폰은 '컬러 전쟁' 중

소비자 주목 위한 컬러 마케팅
기존 모델에 신규색상 출시 등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 출시 효과

삼성 '갤 노트 9' 5가지 색상
LG 'V40 씽큐' 카민 레드 첫선

갤럭시 노트9 클라우드 실버. /삼성전자

LG V40 씽큐 뉴 플래티넘 그레이, 카민 레드, 모로칸 블루. /구서윤 기자

스마트폰이 화려해지고 있다. 검은색, 흰색 위주였던 스마트폰의 색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양한 색상에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독특한 이름까지 붙이며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기본적인 스펙 외에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이유로 풀이된다. 제조사는 기존 모델에 신규 색상을 더해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관심 환기와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갤럭시 노트9'에 새로운 색상인 클라우드 실버를 출시했다. 지난 8월 24일 갤럭시 노트9을 전 세계에서 출시한 이후 약 40일 만이다. 이로써 갤럭시 노트9은 512GB 모델인 오션 블루, 라벤더 퍼플과 128GB모델인 미드나잇 블랙, 라벤더 퍼플, 메탈릭 코퍼, 클라우드 실버까지 총 6가지 모델, 5가지 색상 라인업을 갖췄다.

이 같은 신규색상 출시는 하반기 등장하는 경쟁작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과 LG V40 씽큐의 출시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중국업체의 중저가 스마트폰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색상 출시로 갤럭시 9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환기를 통해 판매량 증가를 노릴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통해 색상에 대한 진화도 계속되고 있다.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40 씽큐는 뉴 플래티넘 그레이와 모로칸 블루 외에 처음으로 카민 레드를 선보였다. LG전자 측은 "카민 레드는 기존 라즈베리 로즈 색상보다 채도를 높여 우아하고 깊은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비슷한 색을 두고도 색의 이름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레드를 두고도 버건디 레드, 레드, 라즈베리 로즈 등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X가 출시됐을 당시 기존 갤럭시 S8에 버건디 레드 색상을 새롭게 출시했다.

애플 또한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마케팅이 진행되던 지난 4월, 아이폰8 레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놨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색상 출시를 통해 색다른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시에 기존에 있던 제품에 새로운 색을 입힘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 출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1~8월 3040 취업자 15만2000명 줄었다

금융위기 후 최대폭 감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000명 감소한 1227만1000명이었다.

30대 취업자는 4만4000명, 40대 취업자는 1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000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보다 12만3000명 늘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줄었다.

이후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8만 3000명 감소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1~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취업자 수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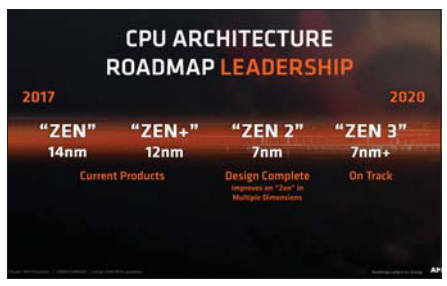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은 1983년에는 23.0%였는데 2009년 28.0%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25.0%까지 축소됐다.

1983년 5.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올해 1~8월 15.9%까지 확대했다. 1983년에 1~8월 전체 취업자의 27.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던 20대는 올해 들어 13.8%로 쪼그라들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인텔 CPU 전세계 공급부족에 AMD '반사이익'

14㎚ 수율 문제 등에 가격 인상
라이벌인 AMD 제품 선택 증가
CPU시장 판도 변화 목소리도



14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되는 인텔 8세대 CPU 제품군과 4일 AMD가 공개한 CPU로드맵.

최근 인텔 CPU가 전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쟁업체인 AMD가 큰 폭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텔 위주의 현재 CPU시장에 변화가 생길 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7월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 과제로 추가 수요 충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시점에서 14나노미터(㎚) 프로세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외에서도 해당 CPU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인으로 14㎚ 수율(불량 없는 양산 비율)문제가 생긴 데다가 차세대 CPU에 코어가 늘어나면서 웨이퍼당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꼽았다.

인텔은 1월 이후 예상치 못한 45억 달러 수준의 수요 증가 등을 들며 늘어난 PC 수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인텔최고재무관리자(CFO)이자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밥 스완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서한을 통해 "게임 수요 등으로 2011년 이후 최초로 PC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텔의 CPU 공급이 의심할 여지 없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밥 스완은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CPU인 제온과 코어 프로세서 생산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인텔이 10억달러(1조1000억원)를 더 투자해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공장의 14나노미터 공정의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인텔의 정책은 시장에서 계속 인텔 CPU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업체가 부품확보를 위해 비싼 가격으로 인텔 CPU를 구입하고 있어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상승한 인텔 CPU의 가격 부담과 물량부족에 호환성이 있는 라이벌 업체 AMD의 CPU를 선택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국내 부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AMD PC용 CPU 매출이 기존보다 2~3배 상승했다. 소매를 포함해 PC방이나 중소 제조사 등 기업 대상 도매까지 포함된 결과다.

AMD는 올해 성능을 개선한 2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를 출시했는데 해외 OEM 제조사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다. 9월 27일 디지타임즈는 "PC 제조업체가 AMD의 CPU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및 ASRock이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장치의 출하를 가속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인텔 CPU 중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2배 늘어도 매출액 증가는 별로 크지 않다. PC업계는 매출 상승 자체보다 사용자의 인식이 개선될 기회를 잡았다는 점을 더 큰 반사이익으로 본다. 이제까지 AMD CPU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열이 많이 나면서 전력만 크게 소모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AMD가 기술력에서 더 앞선다는 인식을 줄 기회가 생겼다. 4일 AMD는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릴 '소비자가전쇼(CES) 2019'에서 7㎚공정으로 제조되는 세계 최초의 고성능 CPU 및 GPU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텔이 10㎚ 공정 캐논 레이크 프로세서를 2019년 하반기까지는 대량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에 대조적으로 AMD가 더 앞선 미세 공정 제품을 내놓는다는 의미다.

디지타임즈는 산업계 소식통을 통해 AMD가 2018년 4·4 분기에 30%의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SK이노, 中에 車배터리 분리막 생산공장 건설

소재사업분야 첫 해외진출
4000억 투자… 내년 초 착공

SK이노베이션 중국 공장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7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에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과 세라믹코팅분리막(CCS)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중국 등지에 대규모 증설에 나서는 추세와 안정적 수급을 원하는 고객사의 요구 등을 반영해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장 건설은 SK이노베이션 소재사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의 협력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투자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창저우시 진탄구 경제개발구 내 14만5000여㎡(4만4000여평)의 부지에 공장이 세워질 예정이다. 리튬이온전지분리막 생산설비 4기와 세라믹코팅분리막 생산설비 3기가 건설된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20년 3분기 중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된 분리막 제품은 전기차 및 IT용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신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리튬이온전지분리막 3억4000만㎡, 세라믹코팅분리막 1억3000만㎡ 규모로 추산된다. 완공되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전지분리막 총 생산량은 연간 8억5000만㎡이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 진행을 위해 100% 지분의 중국 내 법인 SK 하이테크 배터리 머티리얼즈를 설립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스튜어드십코드가 몰고온 투자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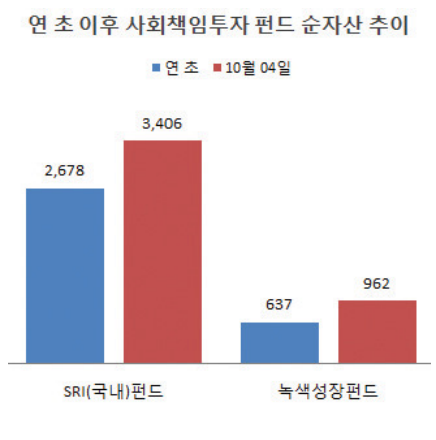
재무적 요소 가치투자 vs 사회책임투자 비재무적 요소

文정부 ESG 투자 강조에
사회책임투자 관심 높아져

증시 등 불확실 변수 높아
이익 중심 가치투자도 주목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과 맞물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가 뜨고 있다. 또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근거해 투자를 결정하는 가치투자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투자 트렌드인 두 투자 방식의 철학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 5일까지 SRI 펀드에 총 728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자산 규모가 3406억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셈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유관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성장펀드 역시 꾸준한 성장세다. 전체 순자산(962억원)의 3분의 1이(325억원) 올해 유입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투자가 강조되면서 SRI 시장이 커지고 있다. SRI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멈추고 반대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는 전략이다.

가치투자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략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미래가치를 평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뜻한다. 증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믿을 건 미래가치 뿐'이라는 기조가 강해진 영향이다.

가치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운용 사장은 "가치투자는 기업의 실적 흐름을 정량분석하고,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정성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비재무적 요소는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치투자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신영자산운용, 국민연금 등이 일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나가면서 이같은 문제의식은 커진 상태다.

지난 달 21일 공시된 바에 따르면 신영자산운용은 가맹점 갑질 이슈에 휩싸인 남양유업을 최근 4년 간 꾸준히 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 반기말 기준으로 6.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기업지배구조원의 ESG 지수 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 C등급을 받았다. 7개 등급 중 6번째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SRI 강화에 나선 국민연금 역시 대주주 리스크를 떠안은 대한항공의 지분 10.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ESG 유니버셜지수'가 대한항공을 편입자산에서 빼고, 한국거래소가 'KRX ESG 리더스(Leaders) 150지수'에서 대한항공의 편입비중을 기존 0.8%에서 0.5%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이에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같이 업권 선두주자이자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업을 사회책임투자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면서 "지금은 사회책임투자와 가치투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치투자와 사회책임투자가 양립하는 가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채원 사장은 "물론 가치투자를 함에 앞서 지배구조 등의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주가가 저점까지 하락했다는 판단이 들면 매수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견제해나가 주가 상승을 유도하면 그것이 가치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1면 '소득있는 무주택자…'서 계속

한 청년이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벽면에 부착된 아파트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채신화 기자

"신혼부부 보다 독신 무주택자가 더 의지할곳 없어"

◆ 직장생활 오래해도 "집 못사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내집마련의 꿈을 접는 이들도 속속 생겼다.

입사 6년차 디자이너 김 모씨(32)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따로 들진 않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본의 아니게 캥거루족이 돼 버렸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독립하기 위해 돈을 모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7억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은 거주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목돈을 못 모은다더라"며 "신혼부부보다 독신 무주택자가 더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정책이 너무 한 쪽에만 쏠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있는 40~50대 중년층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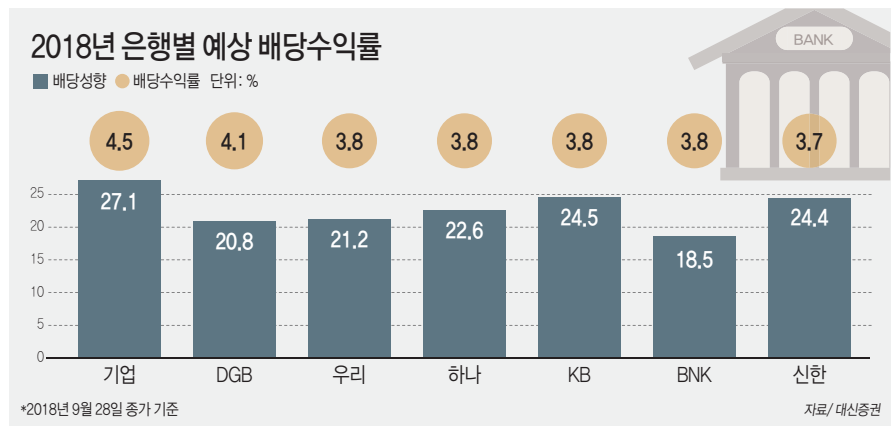
서울에서 20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황 모씨(48)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는 전부 청약을 넣어봤지만 한 곳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너무 부럽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46~55㎡형 기준 위례신도시는 3억원 후반에서 4억원 중반, 평택고덕은 2억원에서 2억원 중반대 수준에서 분양가가 형성될 전망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주주마음 달래기 나선 은행… 자사주 매입할까

KB금융·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주가 부양위해 자사주매입 가능성
M&A·지주사 전환때 활용도 높아



신한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7월 홍콩·싱가포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미국 기업설명회(IR·8~9월)….

시중은행이 최근 이 같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잇달아 쏟아냈다.

소액주주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진 데 반해 주가가 예상 밖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은행권 채용비리를 비롯해 대출금리 부당산출 등의 이슈 등이 터지면서 불신이 커지고,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7일 금융권과 증권가에 따르면 KB금융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배당 외에도 주가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사들인 바 있는 KB금융은 올해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시장에선 KB금융이 자사주를 활용해 금융사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한금융그룹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를 품에 안으며 '리딩뱅크'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금융 계열사 보유를 압박하며 의외의 대어(大魚)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이 KB금융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는 설까지 돌았다. 롯데는 공정거래법의 금융과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 지분을 2019년 10월까지 팔아야 한다. 롯데는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를 패키지로 묶어 매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카드와 증권 부문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KB금융과 카드·증권 패키지 매각이 협상 단계까지 진행됐다.

자사주는 M&A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KB금융은 지난 2016년 2월과 8월에 걸쳐 총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취득했다. 이렇게 사들인 자사주 2155만주 중 444만주는 지난 7월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도 자사주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12월 말 경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이전에 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은 또 다른 빅 트리거(방아쇠·도화선)가 될 가능이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에 불과한 반면 금융지주는 1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여력이 6조7000원(2018년6월말 기준)까지 증가하게 된다. M&A를 통한 추가 수익원 확보 및 다각화가 가능해지는 부분이다"면서 "지난해 수준의 배당성향을 가정하면 올해 배당은 800원이 가능한데 이는 배당수익률 4.9%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달 5일 오렌지라이프 지분 인수를 확정함과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자기 회사 주식)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금융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오렌지라이프 지분 인수 후속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이 이번에 인수한 오렌지라이프 지분은 59.15%다. 나머지 지분은 대부분 소액주주가 보유 중이다. 신한금융은 앞으로 이들 소액주주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신한금융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뒤, 오렌지라이프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6년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22.56%)을 인수한 KB금융도 이후 주식 교환을 통해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하나금융이 고배당에 나설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크다.

SK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는 2016년 수준의 배당성향 회복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배당성향 23.2% 가정시 기말 배당수익률은 3.2%, 연간 배당수익률은 4.1%로 기대돼 투자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의 행보도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9월 초까지 열흘간 미국 현지에서 IR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연임된 후 처음이다.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상반기 경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선 김 회장의 미국 장기 체류가 핀테크 업체 등 모종의 인수합병(M&A) 구상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복귀 예상

›› 1면 '신동빈 석방 사흘만에… '서 계속

롯데는 지난해 10월 쇼핑·제과·음료·푸드 등 4개 사를 아우르는 롯데지주를 설립했고, 비상장 계열사 6개사도 흡수 합병했다. 신 회장의 공백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이 정지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구속 이후 스스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는 사임했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지난 재판과정에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재계 5위에 걸맞은 획기적 투자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등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의 공백으로 막혀 있던 경영 현안들이 점차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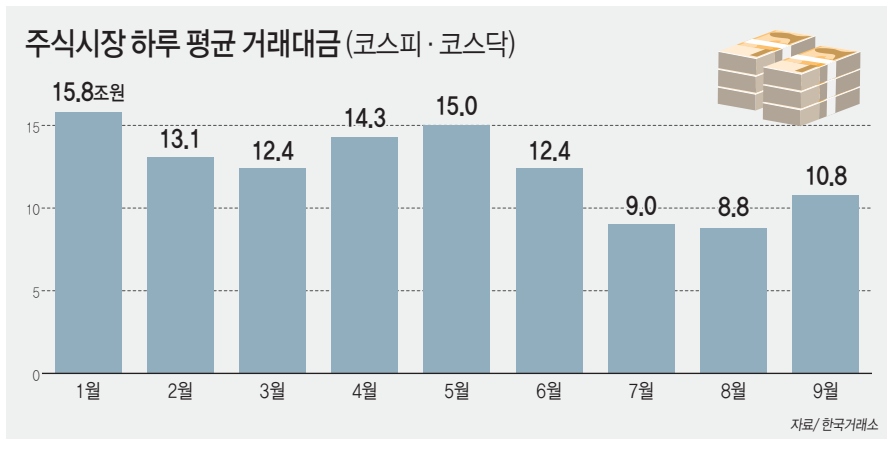
/박인웅 기자 parkiu7854@

내년부터 증권사 해외 송금업 가능

'수수료 내려 거래 활성화'… 주식시장 활기 찾을까

정치권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주식 거래의 '이중과세' 지적

中 거래세 인하로 거래금 증가 등
면제·인하로 거래 활성화 사례도



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의 각종 금융 거래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시장 투자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주식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는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 허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제도 정비를 하고 금융기관 관련서비스 시행은 내년 1분기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증권사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환전이나 해외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송금서비스 이용 대가로 은행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일부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객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대기성 계좌에서도 환전이 가능토록 하고 증권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해외 투자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해외투자실 담당자는 "해외주식은 투자도 잘 하면서 환율도 잘 따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동안 환전은 거래은행 고시환율과 연계해서 거래해왔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송금업이 허용되면 증권사도 고객에게 우대환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해외주식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업계가 수 년 간 요구해온 '증권거래세'(최고 0.5%)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시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투자손실에도 수수료를 내야하고 수익을 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면서 자본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의 사례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싣는다. 실제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하면서 3개월 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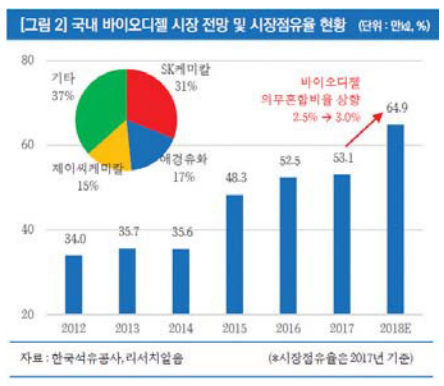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대만이 증권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0.15%)하면서 주식시장 활황을 이끌낸 사례 등은 조세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타낸다"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시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등은 평생 무료 이벤트를 연장해오면서 투자자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가 면제해주는 수수료는 0.015% 내외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사라져야 투자자들은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수수료 면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바이오연료, 석유대체로 수혜

株라큘라의 종목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제이씨케미칼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유가의 기조적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7일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제이씨케미칼'에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원유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공급은 줄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이 감산 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베니수엘라의 정국불안까지 겹치면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중국의 미국산 원유수입 중단 방침과 더불어 미국이 대(對) 이란 원유 수출제재 조치를 예고하면서 불안정한 시장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이씨케미칼의 주력 사업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은 정부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2007년 0.5%를 시작으로 올해는 3%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최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 지역에서 차량용 연료의 5~7% 가량을 바이오디젤로 대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무혼합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유가 급등으로 국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이 조기 상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폐식용유, 삼겹살 기름 등을 혼합한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활용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014년 이후 바이오중유 시범사업을 벌여온 정부는 지난달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했으며, 앞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씨케미칼은 지난해 300억원 규모의 바이오중유 매출을 기록했으며, 향후 수요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계획대로 생산설비 증설이 완료되면 제이씨케미칼은 국내 최대의 바이오중유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물 판매사업 역시 기대되는 분야다.

최 연구원은 "제이씨케미칼이 판매하고 있는 부산물 글리세린이 식물성 전분과 함께 100% 자연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에 따라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엄지기자

징검다리 연휴에 쉬어가기… 전국 2688가구 분양

주간분양 캘린더

이달 중순부터 본격 분양 나석 듯

10월 둘째 주도 개천절, 한글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2668가구가 분양한다.

서울에선 구로구 항동 '항동공공주택지구2·4단지(공공분양)', 경기에선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등이 공급된다. 지방에선 충북 청주시 운동동 '청주동남지구A4(공공임대), 제주 서귀포시 '제주동광리신화오션빌' 등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견본주택은 4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오피스텔)',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일동미라주더오션',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아파트명
10.8(월)	접수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A4(공공임대) 2순위
			화성시	화성향남사랑으로 부영6단지(민간임대) 2순위
	발표	경기	고양시	고양행신2A4(행복주택)
			시흥시	시흥 장현 A4(행복주택)
10.10(수)	접수	경기	연천군	전국석미모닝파크3차 (민간임대) (~10/11)
	발표	서울	강남구	강남헤븐리치더써밋761*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A12(국민임대)
	계약	경기	안양시	안양KCC스위첸 (~10/12)
			화성시	화성동탄2A63(공공임대) (~10/12)
				화성동탄2A81(공공임대) (~10/12)
10.11(목)	접수	서울	구로구	항동공공주택지구2단지(공공분양) 1순위
				항동공공주택지구4단지(공공분양) 1순위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센트레빌 1순위
	계약	서울	강남구	강남헤븐리치더써밋761 (~10/13) *
10.12(금)	오픈	경기	이천시	이천라온프라이빗
	접수	서울	구로구	항동공공주택지구2단지(공공분양)2순위
				항동공공주택지구4단지(공공분양)2순위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센트레빌 2순위
	계약	서울	구로구	항동공공주택지구3단지(국민임대) (~10/16)
				항동공공주택지구8단지(국민임대) (~10/16)

사업진행 등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동산 114

연휴가 끝나고 10월 중순부터 건설사들의 분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남, 위례 등 유망지역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내년부터 암보험으로 요양병원비 보장

금감원 Q&A

Q. 얼마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암보험으로 보장받기는 쉽지 않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의 경우에만 비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암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암의 직접치료'와 무관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보험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의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비용은 보장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LIFE STORE zishen

라이프 스토어 지센

유니클로와 비교해보세요!

✓ 프리미엄 구스다운 100% 충전재 사용

✓ 다운중량 UP 》 볼륨감 + 보온성 UP

지센 전속모델
이보영

프리미엄경량 구스다운

~~₩39,900~~

(유니클로: ₩ 49,900)

지센 전국 매장 전화번호 *(직)직영점 (L)롯데마트 (H)홈플러스 (N)뉴코아 (NC)엔씨백화점 (LM)롯데몰

위비스 온라인몰 www.wivismall.com 지센 공식홈페이지 www.zishen.com

가야(H) 051-892-7111 / 가창상설 053-766-7715 / 간석(H) 032-873-0088 / 강내상설 043-234-5696 / 강릉 033-647-9562 / 강서(H) 02-2668-8577 / 개봉 02-2060-3648 / 거제고현 055-636-3793 / 거제옥포 055-687-8688 / 거창중앙 055-944-6989 / 경기광주상설 031-797-0415 / 경산(직) 053-812-9200 / 경주 054-777-2317 / 계룡상설 041-736-8932 / 계산 032-542-5929 / 계양(L) 070-8836-4373 / 고양터미널(LO) 031-936-3609 / 고흥 061-832-1993 / 공주신관 041-858-7977 / 광덕상설 051-341-5347 / 광명(직) 02-2611-3048 / 광주신가 062-956-7847 / 광주염주 062-400-0122 / 광주용봉(직) 062-512-6202 / 광주월곡 062-955-8845 / 광주진월 062-682-5586 / 광주첨단(직) 062-974-0032 / 구로고대 02-868-2011 / 구리 031-567-1021 / 구리(L) 070-7758-2294 / 구미 054-457-5294 / 구미봉곡 054-456-7772 / 구미신평(L) 054-463-6190 / 구미인동 054-473-2277 / 구의(직) 02-456-0998 / 군산나운 063-465-3216 / 군산수송(L) 063-466-3050 / 기장 051-724-0401 / 길동(직) 02-487-3533 / 김제 063-544-0480 / 김포(LM) 02-6116-5507 / 김포장기 031-985-7100 / 김포풍무(H) 031-989-1564 / 김해(H) 055-320-8250 / 김해어방 055-312-4455 / 김해외동 055-312-7464 / 김해중앙 055-332-3605 / 난곡 02-864-3890 / 남영(직) 02-797-6667 / 남원 063-635-0398 / 남해점 055-864-6665 / 노원(S) 02-972-7858 / 논산 041-733-4547 / 답십리(직) 02-2212-0038 / 대구감삼 053-572-6633 / 대구대신 053-553-9223 / 대구만촌 053-743-1340 / 대구봉무(직) 053-986-1166 / 대구상인(직) 053-639-7752 / 대구서부(직) 053-623-0631 / 대구시지(직) 053-792-7752 / 대구신암 053-243-8808 / 대구엑스코(NC) 053-662-9203 / 대구용산(H) 053-552-1236 / 대구이현상설 053-522-5228 / 대구현풍 070-4107-8500 / 대덕(L) 070-4189-3803 / 대전가오상설 042-280-9245 / 대전도마 042-522-5926 / 대전둔산(H) 070-8882-0791 / 대전문화(H) 042-221-2566 / 대전부사 042-274-4858 / 대전비래 042-621-7100 / 대전유성(H) 042-822-5926 / 덕계 055-363-3852 / 도봉상설(직) 02-954-7751 / 동광주(직) 062-251-5533 / 동대문 02-741-9413 / 동두천중앙 031-858-6848 / 동래상설 051-553-0070 / 동부산(LO) 051-901-2793 / 동수원(N) 031-233-3783 / 둔촌(직) 02-474-7717 / 마리오아울렛 02-2067-3832 / 마산내서 055-231-5507 / 마천 02-409-4365 / 먹골상설 02-971-5339 / 목동 02-2646-7421 / 목포 061-243-8701 / 목포하당 061-287-0580 / 문산 031-952-0310 / 밀양 055-356-8575 / 반여(직) 051-783-2459 / 반월당 053-254-8883 / 방배(직) 02-585-7752 / 방촌 053-983-1365 / 범일 051-634-5545 / 병점 031-222-6446 / 보령 041-936-3862 / 봉담상설 / 031-295-7640 / 봉덕 053-473-9688 / 부산당감 051-892-1244 / 부산당리(직) 051-201-2712 / 부산대연 051-623-0707 / 부산대청 051-909-9588 / 부산두실 051-517-0025 / 부산사상(직) 051-311-9106 / 부산서동 051-527-0838 / 부산서면 051-803-5770 / 부산아시아드(H) 051-503-4347 / 부산영도 051-415-5507 / 부산용호 051-628-8644 / 부안 063-584-3675 / 부천(직) 032-666-2883 / 부천남부 032-330-8123 / 부천상동(H) 032-327-0015 / 부천원종(직) 032-678-8999 / 부천중동 032-326-0789 / 부평 032-515-5607 / 북삼 054-975-1097 / 분당(2001) 070-8874-2162 / 사당 02-584-8549 / 산격 053-954-6469 / 산본(LM) 031-8033-1267 / 삼선교 02-744-0782 / 삼척 033-575-0555 / 삼패상설 031-521-3845 / 상계(직) 02-930-6842 / 상도 02-812-0144 / 상봉 02-493-8926 / 상주중앙 054-536-5395 / 서귀포 064-732-8662 / 서김해상설 055-324-0089 / 서산 041-667-0736 / 서울금호 02-2237-5647 / 서울대(직) 02-871-9255 / 서전주 063-225-6565 / 성남은행 031-731-1412 / 성남태평 031-623-5999 / 성수상설 02-461-8961 / 속초 033-633-5549 / 송림상설 032-578-0788 / 송우리상설 031-541-4601 / 송파(L) 070-4138-5886 / 수원남문 031-243-9481 / 수원조원 031-243-6105 / 수원탑동 031-8001-7270 / 수원터미널(NC) 031-8065-3822 / 수유점 02-996-4026 / 수지(L) 031-897-1566 / 시흥신천 031-311-3058 / 시흥신천상설 070-8867-5989 / 신당 02-2235-1560 / 신모라 051-325-4675 / 신정 02-2645-0620 / 신제주(L) 064-743-1789 / 신촌(직) 02-332-5801 / 신탄진 042-934-9523 / 안동 054-857-7098 / 안산(N) 031-411-7354 / 안산선부 031-411-1452 / 안산성포(L) 031-413-3252 / 안성 031-675-2340 / 안성(L) 031-657-6412 / 안양관양상설 031-382-7297 / 안양중앙(직) 031-441-4840 / 안양평촌(N) 031-380-1376 / 안중 031-683-9550 / 양산 055-362-0219 / 양평 031-772-1719 / 여수여천 061-683-7732 / 역곡 032-342-7063 / 연산(직) 051-851-8181 / 연신내(직) 02-351-3416 / 영광 061-352-4040 / 영동 043-745-1391 / 영등포(H) 02-2677-9510 / 영주 054-632-9282 / 영천 054-333-1771 / 영통(L) 031-273-4373 / 예산내포상설 041-331-3553 / 오산(직) 031-374-1544 / 온양 041-543-9723 / 울산(S) 052-227-3882 / 울산무거 052-221-1780 / 울산신정 052-269-4455 / 울산중구(H) 052-298-2366 / 원주점 033-743-4915 / 유성원내(L) 042-541-3252 / 은평몰(LM) 02-6975-5020 / 응암 02-304-2808 / 의왕(L) 031-421-5273 / 의정부(H) 070-7753-7713 / 의정부중앙 031-840-5454 / 이수점 02-532-3326 / 이천가든워크(직) 031-644-3258 / 이천부발상설 031-634-1081 / 익산영등 063-833-4446 / 익산중앙 063-856-8810 / 익산팔봉 063-834-7550 / 인덕원 031-423-4108 / 인천(LO)상설 032-728-2637 / 인천가좌 032-584-6966 / 인천검단(직) 032-567-2225 / 인천구월(직) 032-461-9997 / 인천논현(N) 032-454-8227 / 인천만수(직) 032-461-7949 / 인천병빙(직) 032-554-6101 / 인천삼산상설(직) 032-330-2448 / 인천신현 032-577-8707 / 인천연수 032-814-2500 / 인천학익상설 032-875-5205 / 일죽상설 031-674-1144 / 자양(직) 02-444-3274 / 잠실(L) 02-411-0839 / 장림 051-266-8873 / 전주(S) 063-231-3355 / 전주동산 063-241-0632 / 전주서신(직) 063-272-6028 / 전주송천 063-272-6255 / 전주인후 063-246-8284 / 전주평화 063-222-0017 / 정읍 063-537-2200 / 제주연동 064-746-2120 / 제주이도 064-755-5561 / 제주지하 064-727-0034 / 제천 043-644-4315 / 조치원상설(직) 044-868-9522 / 종로상설 02-2272-3945 / 죽전(직) 031-266-1830 / 중곡상설(직) 02-444-2757 / 지산 053-783-6050 / 지스북수원(H) 031-243-4824 / 지스시흥(H) 02-806-6500 / 진영상설 055-343-8008 / 진주 055-742-4455 / 진천 043-533-2557 / 창녕 055-532-8089 / 창원가음정 055-289-9189 / 창원대동 055-212-8833 / 창원중앙 055-264-1121 / 창원합성(직) 055-296-7752 / 천안 041-908-4656 / 천안모다아울렛 041-904-6933 / 천안쌍용 041-572-0668 / 천호(직) 02-470-6682 / 철산20010아울렛 02-2067-7529 / 철원점 033-455-0088 / 청라(H) 032-567-8511 / 청라(L) 032-561-2460 / 청량 02-3295-5811 / 청원 043-287-8979 / 청주금천(직) 043-288-5028 / 청주남문(직) 043-224-5028 / 청주내수 043-217-6680 / 청주복대 043-234-0600 / 청주율량 043-218-3968 / 춘천로데오 033-263-5431 / 춘천명동(직) 033-254-4479 / 춘천중앙(L) 033-261-8273 / 충무상설 051-231-2272 / 충주점 043-856-8999 / 칠곡 053-324-8885 / 태백 033-552-2132 / 통영무전(L) 055-644-1900 / 통영항남 055-646-2221 / 평거 055-741-4982 / 평택 031-652-1540 / 포항웰빙 054-221-9939 / 포항장성 054-249-9987 / 포항죽도 054-252-4266 / 포항학산 054-249-9985 / 포항흥해 054-262-4945 / 하남 031-794-0876 / 하양 053-857-9799 / 해운대(NC) 051-709-5787 / 행신(L) 070-7757-9877 / 홍천 033-433-0078 / 화곡(직) 02-2065-6872 / 화곡중앙시장점 02-2696-0536 / 화명(직) 051-338-0782 / 화순 061-375-5449 / 화양리점 02-462-6226 / 화원 053-634-4876 / 화정(L) 031-970-7708

4050총수시대, 新성장동력 위한 연말 통큰 조직개편

재계 대규모 세대교체

현대차 등 새 수장 사람들 중용
삼성·SK, 시대 흐름 맞춰 인사
한화, 수시 인사로 조용한 연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요 그룹 임원들의 세대교체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 등 40~50대 총수 시대를 맞은 그룹들이 연말 큰폭으로 인사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수가 바뀌었거나 복귀한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기 인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새로운 총수 체제 확입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조직 재편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그룹들은 '세대 교체'를 추진할 전망이다. 올해 연말인사의 최대 관심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이다.

◆현대차·LG그룹·포스코 '새 술은 새 부대'

정몽구 회장을 보좌해 현대자동차그룹의 2인자로 떠오른 정의선 총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회장, 세계 5위 철강기업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 최정우 회장 등이 자신과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신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정 수석 부회장은 윤여철, 김용환, 양웅철,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과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을 이끌며 위로는 정 회장을 보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의 미래차 투자 등 주요 경영 상황을 폭넓게 챙겼지만 이번 승진으로 정 회장에 이어 회사 경영을 이끌어갈 2인자로서 그룹경영 전반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올 연말 인사를 대폭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수석 부회장이 승진 후 미국 방문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이라 실무를 맡고 있는 부사장급 이하에서 대폭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

또 젊은 리더로 소통을 강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미래차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정 수석 부회장의 색깔이 반영될 경우 대규모 세대 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30대 기업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9.2년과 20.5년으로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30대 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10.7년이라는 점에서 두배 가까이 높다.

만 40세의 '젊은 총수'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후 사내 행사에 참석하기보다 현안 파악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LG그룹은 최고경영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3, 5, 7, 10월 임원세미나를 개최했지만 구 회장 취임한 지난 6월 이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LG그룹 인사는 오는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계열사별로 사업부장, 사업본부장, CEO 순으로 이어지는 연간 실적업무보고가 한창이다. 인사 시기는 다음 달 구 회장 주재의 사업보고회 이후가 될 전망이며 6인의 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대폭의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구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관련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4대 그룹 중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 LG그룹이 전사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AI 사업 관련 조직개편과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 받는 모바일 사업부와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한 디스플레이 부문 인사도 관전 포인트다. 파격적인 영입인재도 가능하다는 게 LG 내부의 의견이다.

지난 7월 제9대 포스코 수장으로 취임한 최정우 회장도 연말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11월 초 취임 100일에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 정기 임원인사를 매년 연초에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올 연말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이 인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조직 쇄신과 개혁을 위해 물갈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27일 공식 취임식을 갖은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철강 부문은 지속적으로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으로 강건히 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사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올해 연말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K, '신성장동력 확보 집중'

삼성과 SK, 한화 등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업의 조직개편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정기인사는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전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주는건 다소 무리가 있어 대규모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자동차 전장사업 등 '포스트 반도체' 발굴에 힘을 기울여 온 만큼 외부 인력 영입과 함께 조직개편 가능성이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실적 둔화로 인해 승진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사장급 이하 임원을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그룹에서은 오는 12월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원과 직원 인사가 이뤄진다. 2016~2017년에 걸쳐 CEO 대부분을 젊은 인물로 채운 상황이어서 올해도 인사 수요는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SK은 'SK텔레콤 중간지주'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신과 비통신의 균형을 위한 조직 구성,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공유 경제'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조직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SK는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주요 경영진 상당수가 50대다.

한화그룹은 다른 그룹과 달리 연말에 한꺼번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수시 인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조용한 연말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화그룹도 김동관 전무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어 연말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전무가 이끌고 있는 태양광사업을 향후 주력 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달 주요계열사인 한화큐셀, 한화토탈, 한화지상방산 등 3곳의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기어 브랜드 대신 '갤럭시'로 통일

'갤럭시 360·갤럭시 VR' 상표 등록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성 강조 전략

한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VR 헤드셋인 '기어VR'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에 이어 차기 VR 기기와 360도 카메라 등에서도 '갤럭시' 브랜드를 사용한다. '기어' 브랜드는 사실상 폐지됐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 특허청에 '갤럭시 360' 상표와 '갤럭시 VR' 상표를 연달아 등록했다.

이에 따라 360도 카메라인 '기어 360'은 '갤럭시 360'으로, VR 헤드셋인 '기어 VR'는 '갤럭시 VR'란 이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VR과 갤럭시 360은 내년 상반기 갤럭시 스마트폰 10주년 기념작인 갤럭시S10과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기어 360의 최신 제품은 2017년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공개된 제품으로 4K 해상도의 초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PC와 연결하면 유튜브, 페이스북, 삼성 VR 등의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가능하다.

당시 함께 선보인 VR 헤드셋 '기어VR 위드 컨트롤러'는 자이로 센서, 가속 센서 등을 내장해 이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 오래 하면 어지러운 인터렉티브 게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변경은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통합적인 사용성을 강조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정유사 3분기 실적 '好好'

정제마진·PX스프레드 상승 영향
'난방 증가' 4분기 실적호전 기대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일 평균 1천659.6으로 약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천744.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7일 서울 시내 한 주요소 가격안내판에 휘발유 가격이 1천740원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최근 증권가에서 호전된 실적 추정치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기간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사의 시차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유사가 원유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기까지 30~4일이 소요, 이 시간 유가가 오르면 제품의 단가도 상승해 정유사가 갖는 마진이 높아진다.

8일 IB업계에 따르면 정제마진, PX스프레드 상승 등으로 오는 3분기 정유산업의 3분기 실적호전이 예상되고 있다.

KB증권 백영찬 애널리스트는 "3분기 정제마진은 배럴당 6.8달러로 전분기대비 1.1달러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PX스프레드(나프탄 원료 기준)는 1톤당 501달러로 전분기 평균 344달러 대비 157달러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PX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난방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4분기에도 실적호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이 정제마진이 수익구간에 접어들면서 정유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또한 높게 점쳐진다.

손지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을 7589억원으로 추정했다. SK이노베이션의 전분기 영업이익은 8516억원, 전년 동기 영업이익은 9660억원이다.

또 S-Oil의 3분기 영업이익은 3725억원으로 내다봤다. S-Oil은 지난 2분기 4026억원, 지난해 3분기에 5532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의 높은 영업이익의 핵심은 정유 사업부다. 8월 중순까지만해도 좋지 못한 시황을 보였지만 이후 유가상승, 마진반등 효과로 인해 빠른 실적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에서도 PX 가격도 급반등하면서 실적강세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G전자 獨 특수유리 '미라듀어' 인덕션 출시

LG전자가 8일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사의 '미라듀어 글라스'를 적용한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 미라듀어는 특수유리로 다이아몬드에 견줄 만큼 긁힘에 강하다. 기존 전기레인지용 글라스의 마텐스 경도는 4수준인데 미라듀어는 10수준이다. 미라듀어를 인덕션 전기레인지에 적용한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LG전자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용기로부터 열을 차단하고 ▲최적화된 코일 설계로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핵심부품을 보호하는 설계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3중 고화력 부스터'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화력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309만원(모델명: BEF3MT)과 209만원(모델명: BEI3MT)이다.LG전자는 5구 가스레인지를 대체할 수 있는 760㎜ 폭의 와이드 3구 제품(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과 가격 부담을 낮춘 2구 제품(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1구) 등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신제품 2종도 함께 출시해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각각 199만원과 99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잔금 완납 조건임)
월 90만원 /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
(오피스텔 22A2타입 2채 기준)
(보장기간 : 계약서상 지급 개시일부터 10년간 / 보장방법 : 임대 및 건물관리 위탁사와 계약 체결 조건, 위탁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 위탁사가 직접 지급)

선시공 후분양
10년 임대보장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 1가구 2주택 미적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양도세 중과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릅니다.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5천에 2채
(오피스텔 22A2타입, 실투자액 [분양금액-최대 가능 대출액(=분양금액의 60~70%-보증금)]기준, 취득세 적용 전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잔금 완납 조건임)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 공실걱정 無
- 유지보수 無
- 중개수수료 無

시행사: (주)골든핏 씨앤디
시공사: 대림산업
신탁사: 아시아신탁
분양사: (주)엔터렘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광고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은행 : 1006-301-474637
- 예 금 주 : 아시아신탁(주)
- 청 약 금 : 100만원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1811-8821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아산탕정산단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정밀 등
약 30,000명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백석농공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약 60,000명

+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기술대학교
약 40,000명

→ 아크로텔 천안두정
"풍부한 임대수요"
약 130,000명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m²	연면적	67,484.95m²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45	보증금 1,000 / 월 41	보증금 1,500 / 월 37	보증금 6,500 / 월 20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투자금액 2천만원대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담당제이므로 담당자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지참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광고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혜택
1 1가구 2주택 미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4 양도세 중과 배제

문의 1811-8821

'여혐' vs '남혐'… 혐오의 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증오범죄'의 불씨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⑮ 혐오

혐오 전쟁터로 변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워마드 등 혐오 가감없이 표현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 불똥

82년생 김지영 조남주/민음사

최근 사회 전반을 장악한 키워드를 꼽자면, '여혐(여성혐오)'과 '남혐(남성혐오)'을 빼놓을 수 없다. 대체 남녀 갈등은 어디에서 촉발되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남녀 갈등의 파장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봤다.

◆증오범죄, 시작은 온라인커뮤니티

여혐과 남혐,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감정이 범죄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로 '증오범죄'다. 지난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을 갖고 있었으며, 손상된 자존감에 대한 분노를 여성을 상대로 표출했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의 희생자를 낸 유영철 사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강호순 사건이 있다. 공통점은 범인들의 동기에는 여성에 대한 증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령 상관없이 혐오라는 감정에 쉽게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는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워마드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본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혐오성 게시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연일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일베저장소 게시물 중에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의 '여성혐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베저장소'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최근에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74세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한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듯 '일베저장소'에 게시글은 물론, 나체 사진까지 함께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서초구청 직원의 범행으로 드러나면서 마무리됐지만,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폐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여파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워마드 사이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성을 향한 증오가 가감없이 드러나있으며 협박성 예고글도 빈번하게 올라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워마드 사이트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다른 여성단체들과는 달리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지난 5월에는 한 워마드 회원이 홍익대 회화수업용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 사회 파장을 일으켰다.

두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익명을 무기로 혐오 표현을 비롯한 성차별적 문구들을 무수히 쏟아낸다. '한남충(한국 남성에 벌레 충을 붙인 단어)'과 '웜충(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유저를 깎아내리는 말)'은 기본이다.

혐오담론이 시초가되어 사회적 갈등을야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소통의 창구'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탄생하지도 않은 '82년생 김지영'이 대체 왜?

최근에는 완성되지도 않은 영화 한 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조남주 작가의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부 남성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민음사에서 출간돼 약 10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소설은 현재 여성이 겪는 여성혐오와 그 윗세대가 겪은 가부장제의 폐해를 담담히 써내려갔다. 주인공 김지영은 어쩌다 한 번 아이를 데리고 나와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맘충' 소리를 듣는, 80년대 태어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일을 겪은 보편적인 인물이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여성들의 시대상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소설인 만큼 많은 영화 제작에 거는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의견들이 있는 한편, 성 갈등을 조장한다는 불편한 시각들이 맞부딪혀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봄바람 영화사에서 영화 제작을 결정하고, 주인공 역에 배우 정유미가 캐스팅되자 정유미의 SNS에는 악성댓글로 도배됐다. 앞으로 정유미가 출연하는 작품은 보지 않겠다며 협박성 글을 남긴 이들도 상당수였다.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에 평점테러도 가해졌다. 현재 네이버 영화 평점은 4.37이며, 영화 제작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한 바 있다.

국민청원을 올린 10대 남학생은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이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보편화되어서는 안된다'며 '82년생 김지영'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2년생 김지영'이 소모적인 성갈등을 조장하므로 영화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영화 제작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응이 '백래시(사회적 변화에 반발하는 심리 및 행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권위주의, 성 차별 타파)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원하는 방향(권위주의)으로 회귀하도록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 결국 소설 내용이나 영화 제작과는 관계없는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여러가지 논란에도 '82년생 김지영'을 제작하는 '봄바람 영화사'는 좋은 영화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노브릭, 中 조폐잉크공사와 '가짜' 막는다

제휴 맺고 위조방지 확대 적용

나노브릭은 국내 민간업계 최초로 중국 조폐잉크공사와 전략적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내 가품을 근절하기 위한 정품인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나노브릭은 나노 신소재를 기반으로 위조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조폐공사 산하의 중국 조폐잉크공사는 위안화(지폐) 및 증서, 증권, 어음, 여권, 증명서 등 각종 보안문서에 사용되는 특수잉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관으로 중국에서 위조방지를 위한 첨단 보안잉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노브릭과 조폐잉크공사는 이번 사업 제휴를 통해 나노브릭의 자기색가변 기술과 조폐공사의 보안잉크 기술을 결합해 중국 내 주류, 담배류,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들의 위조방지 제품에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아시아 및 글로벌 위조방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긴밀한 파트너쉽도 구축키로 했다.

양사간 합작을 통해 제작되는 엠태그(M-Tag) 등 정품인증 제품들은 중국 조폐공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생산 공급하고, 정품인증 제품이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일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나노브릭은 해당 정품인증 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가품이 나타나면 중국 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조품 업체를 추적하는 '가품 추적시스템'도 구축, 피해를 받고있는 국내 정품업체들이 가품의 근거지를 색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네이버·카카오 해외투자, 1년새 '1조원'

지난해 9배 수준으로 급증
사업 성과… 투자 확대 중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해외투자가 작년의 9배 수준인 1조원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해외 투자액은 9797억원으로 작년 1116억원의 8.8배에 달했다.

네이버는 일본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 라인의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분 7517억원을 포함해 해외투자액이 작년의 8.9배인 8725억원으로 급증했다.

네이버는 올해 미국 비즈니스 플랫폼 '허니북(HoneyBook)'과 회원제 소셜커머스 '매스드롭(MASSDROP)'에 각각 56억원과 45억원을 투자했고, 동남아시아 공유오피스 '넥스트하이브인터내셔널'과 동남아 쇼핑 검색·가격비교 업체 '아이프라이스(iPrice) 그룹'에도 각각 22억원을 투자했다.

〈네이버·카카오 해외투자 현황〉

	2016	2017	2018
네이버	309	975	8,725
카카오	360	141	1,072

(단위: 억원) /자료=과기부, 네이버 등

카카오의 올해 해외투자액은 1072억원으로 작년 141억원의 7.6배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3월 일본에 블록체인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약 200억원의 지주회사 '카카오 G'를 설립했다. 4월에는 카카오재팬의 일본 만화 플랫폼 픽코마에 8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성과가 나고 있어 해외투자를 확대해 사업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느리게 진행되자 고속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해외 업체에 대한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가 라인에 거액을 투자해 핀테크 등 신사업 거점이 한국 대신 일본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승차공유 시장이 육성되지 못하는 사이 SK와 현대차, 미래에셋 등이 중국이나 동남아 승차공유 업체에 수백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포털 대기업 등이 해외 업체 대신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대서울병원, 10월 준공… 내년 2월 진료 개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이화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이 이달 말 준공하며 내년 2월에 진료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 5일 개최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이대서울병원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은 10월 말 계획대로 준공해 11월 12일 준공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2019년 2월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단계적으로 병상 수를 늘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1014병상 모두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대서울병원 개원 준비단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이화의료원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자"면서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변화되는 의료원의 양병원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이대목동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박인웅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서 1300억원 규모 의약품 공급

'렌플렉시스' 5년간 독점 계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1300억원 규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입찰에 성공했다.

7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파트너사인 MSD(미국 머크)는 우리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미국 재향군인부와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맵)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1억1749만6000달러 규모의 렌플렉시스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렌플렉시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다국적제약사 얀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다.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쓴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받아 같은 해 7월 미국 머크가 현지 출시했다.

재향군인부는 미국의 퇴역군인을 위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의료나 금융 등 각종 분야의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는 이번 입찰 성공이 렌플렉시스의 미국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향군인부를 통해 미국 전역에 렌플렉시스를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향군인부가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데에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이번 입찰 성공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5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국내외 역차별·구글세… 이해진·김범수 증인 또 나오나

과방위 국감 D-2

삼성·LG전자·이통사 CEO 증인대
'드루킹 댓글조작' 집중 질문 전망
5G 장비 화웨이 선정 여부 도마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뉴스 재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앞으로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기업의 대표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국감을 앞두고 IT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IT 업계의 민감한 이슈들이 총동원 돼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와 삼성·LG전자 등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이뿐 아니라 양대 포털사 대표이사들도 모두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각각 국감 증인대에 서게 됐다.

당초 여야는 해당 분야 실무자의 참석을 협의했지만, 회의 후 대표이사로 격상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인물로는 이해진·김범수 창업자가 꼽힌다. 이번 증인 채택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한 만큼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포털의 공정성 등에 대한 날선 질문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렸던 이해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은 지난해 국감에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메인 개편안'을 공개하기도 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가계 통신비 이슈에 대해 여야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지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의 경우 지난 8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내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ICT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의 한국법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 한국법인 대표들 또한 지난해 과방위 국감 때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이들이 국내 ICT 기업과 역차별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은 외국계 IT 기업 대상으로 세금 회피를 막자는 취지에서 '구글세'를 걷자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올해 국감 게임 분야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채택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다.

국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은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루홀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문제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등은 CEO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1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하며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국감 D-2

與 "평화는 경제" vs "민생은 부재" 野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한 해 문재인정부가 거둔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야당이 국감 무대에서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띨 전망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야당의 거친 공세는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태세다.

이 과정에서 고용지표 악화 등의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본다.

이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국감장에서 부각, 정부·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계산이다. /연합뉴스

평양갔다 서울 온 폼페이오 '보따리'에 관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협의
평화협정·비핵화 등 수순 시작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에서 들고 온 '선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에서 서울로 날아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저녁에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공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엔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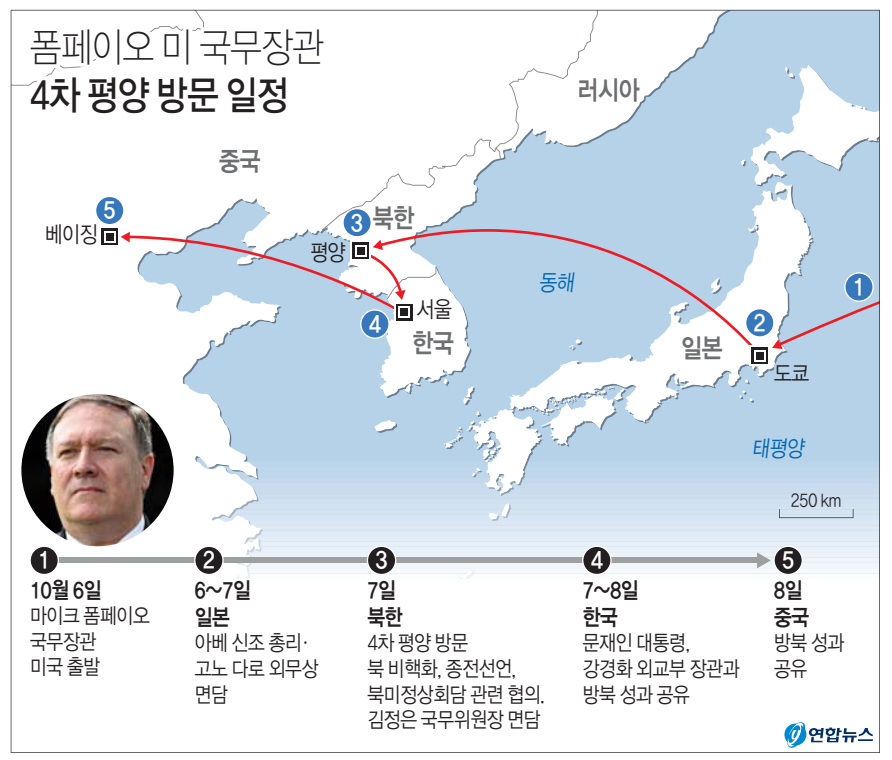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을 예방한 폼페이오 장관은 8일엔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측 인사와 역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네번째 평양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을 잡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곧 종전선언 이후의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수순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고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앞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별개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특히 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도, 미국도 같은 생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폭스(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65년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흘러왔기 때문에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다"면서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하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도 비핵화 방법론과 과정에 대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완전한(현재) 핵 신고를 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에 대해 북한이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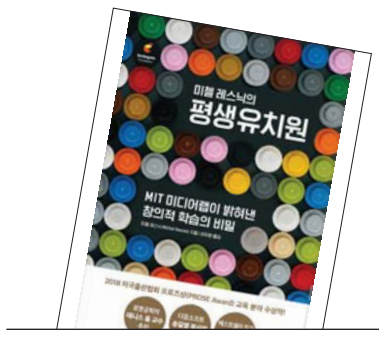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종전선언을 위한 첫 단추를 꿰고 향후 진행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 그리고 평화협정을 거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는 곧 김 위원장이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노력을 미국이 인정하고, 그동안 종전선언에서 소외되는 듯 했던 중국까지 포함한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빠른 시점에 할 경우 한반도 문제가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승호 기자 bada@

새로 나온 책

4차산업혁명 세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이 했던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AI 시대로 대표될 4차산업혁명을 살아갈 세대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과정에 포함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MIT 미디어랩의 미첼 레스닉 교수는 창의력을 위한 학습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회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미첼 레스닉의 평생유치원

미첼 레스닉 지음/최두환 옮김 /다산 사이언스

창의성에 관한 대중적 이야기는 종종 "아하!" 순간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물체를 물속에 담그고 넘치는 물의 양을 측정하면 그 물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다(Eureka)!"라고 외쳤다.

우리는 코딩이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유창함과 표현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글쓰기를 배울 때 단지 철자법, 문법, 구두점만을 배운다면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방법이다.

코딩도 마찬가지다. 코딩의 기본적인 문법과 구두점을 배우기에는 퍼즐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해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십자말풀이를 통해 글쓸기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으로 철자법과 어휘력에 관한 지식을 재미있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좋은 작가가 되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거나, 자기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표현하게 돕지는 않는다.(p.116)

레스닉 교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소개한다. 그는 이제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창의성은 학습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5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지음/위즈덤 하우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를 총망라한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다시 돌아왔다. 전면 개정 2판은 실생활과 밀접한 '리벤지 포르노', '무고죄', '대리운전' 등의 문제들을 새로운 사례들과 함께 담았다. 저자는 20년 간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법원에 가기 전 꼭 한번 읽어보자. **424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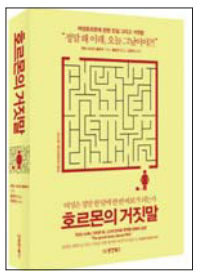
은근 짜릿해

슷카이 지음/창비

네이버 도전만화에서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신예작가 슷카이의 첫 번째 만화 '은근 짜릿해'의 단행본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77개의 짜릿한 순간들을 섬세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캐치하여 신인답지 않은 능숙한 솜씨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20-30대 싱글 여성들의 소박한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마스다 미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한층 명랑하며 긍정적이다. **428쪽. 18000원.** /김현정 기자

호르몬의 거짓말

로빈 스타인 델루카 지음/황금진 옮김/동양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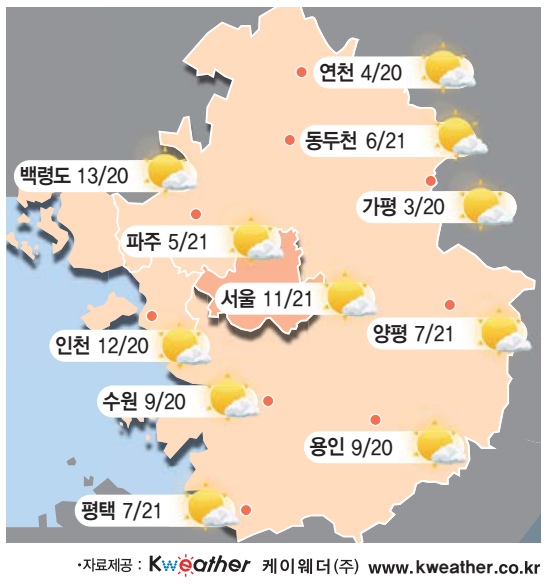
2016년 130만 조회수를 넘기고 22개 언어로 번역되면서 큰 화제가 된 TED 강연 '생리전증후군에 관한 희소식'을 토대로 완성됐다. '호르몬의 거짓말'은 15년 동안 '여성의 건강과 젠더 불평등'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 박사, 로빈 스타인 델루카의 오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과학 정보'가 사실은 '통념'이나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 **448쪽. 17500원**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 06:33 | 해짐 / 18:06

10월 8일 (月) 음력 : 8월 29일

수도권 날씨 11 ~2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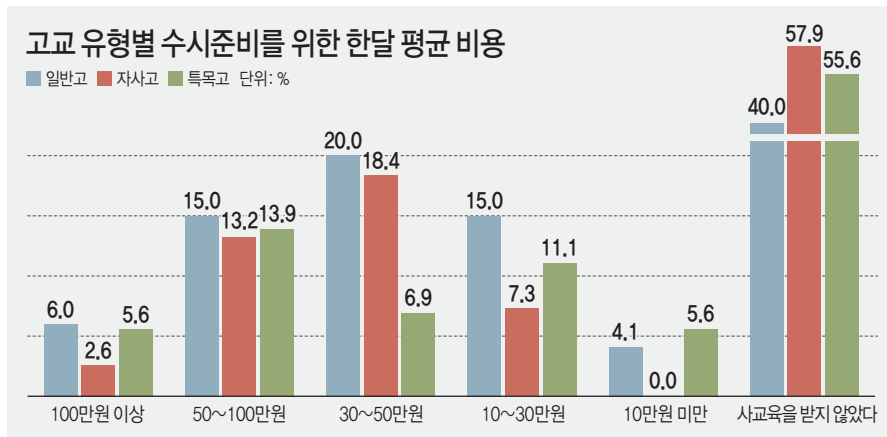
"일반고 학생, 학종 사교육 더 받아"

〈학생부 종합전형〉

자사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준비

수시 사교육도 일반고가 더 받아

일반고도 정시·수시 학교 나뉘어



자료/진학사

사교육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이 자립형사립고(자사고)보다 일반고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의 경우 학교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사고 학생 10명 중 4명은 고1부터 대입 수시모집 학종전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학사가 고3 회원 1711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 수시준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99%(1694명)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전형은 무었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학종을 꼽았다. 이어 학생부교과전형(30.4%)이었다. 학종 준비 비율을 보면, 고교유형별 자사고(6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고(52.9%), 특목고(47.9%) 순이었다.

자사고는 특히 재학생 중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했다는 비율이 7.9%로 타 고교유형과 비교해 매우 적은 반면, 논술전형에 지원했다는 비율은 28.9%로 특목고나 일반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사고 내신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사고 학생들은 특히 수시모집 전형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는 질문에 고1부터(39.5%)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특목고(38%), 일반고(32%)는 고3부터 준비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아 대비된다.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주로하는 수시전형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비율에서도 자사고가 눈에 띄었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자사고는 '학교 내 운영 프로그램'(41%)이 가장 많았고, 특목고는 '학교 선생님 지도'(32%), '스스로 준비'(32%) 순, 일반고는 '학교 선생님 지도'(36%)가 많았다. 자사고가 다른 고교 유형과 비교해 수시모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이 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장소로 학교를 꼽은 비율도 자사고(57.9%)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51.8%), 특목고(46.5%) 순이었다.

수시모집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에서도 자사고(57.9%)가 가장 많았고, 특목고(55.6%), 일반고(40%) 순이었다. 수시전형을 위한 사교육이 주로 학종전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고 재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많은 셈이다. 사교육 금액은 특목고(13.9%, 50~100만원)가 가장 높았고, 일반고(20%), 자사고(18.4%)는 각각 30~50만원을 쓴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 유형이 수시 전형 준비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특목고(69%), 자사고(60.5%), 일반고(56.9%) 순이었다. 자신의 학교 유형이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 자사고 학생 중 '내신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도 없었지만, 일반고는 33.7%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수시모집 전형유형이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학생들은 올해 수능 전까지 공부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에 남학생(51%), 여학생(66%) 모두 '핸드폰'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걱정과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체력'을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선영(46) 씨는 "일반고도 수능을 주로 준비하는 정시학교와 학생부를 준비해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수시학교로 나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학생이나 학부 모들이 각 고교별 대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별 대입 지원 결과는 현재 각 고교의 입시결과 정보와 각 대학 신입생 정보를 활용하면 볼 수 있으나, 고교나 대학의 서열을 드러낼 수 있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고교별로 입학 대학 명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전형 유형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세월호 참사에도… 해양어선 관리부실 여전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총 9413건

종합대책에도 해양사고 매년 증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양어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오히려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가 총 9413건(1만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 등 총 234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의 경우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의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의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의 사고가 해양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인해 척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지난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수산업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선원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불법적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MASERATI
COLLECTION

다가오는 캠핑시즌… 식품업계, 캠핑족 겨냥 간편식 '집중'

시장 규모 1.5조… 매년 상승세
징검다리 연휴로 수요 증가 기대
든든한 음식 간단히 즐길 수 있어

순살 닭다리구이 2종(왼쪽부터),이혜정의 일품 소한마리탕.

/신세계푸드·엑셀 비프

글램핑, 오토캠핑 등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식품업계가 캠핑족을 겨냥한 간편식에 주목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1년 60만 명에서 2016년 500만명 이상으로, 5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 시장 규모도 2008년 2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은 국경일이 평일과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징검다리 연휴'로 캠핑을 즐기는 인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캠핑시즌을 맞은 캠핑족들에게 식사 준비가 번거로운 캠핑지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일 것으로 보인다. 보양식부터 간편 안주까지 다양한 간편식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캠핑족의 간편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리연구가 빅마마의 조리 비법을 담은 간편식 '이혜정의 일품 소한마리탕'은 캠핑장에서 따뜻한 아침식사를 간편하게 즐기길 원하는 캠핑족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제품이다. NS홈쇼핑에서 첫 판매 15분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한 이후, 7회 방송에 총 16만3000개의 완판되며 인기몰이 중이다. 제품을 개봉해 3~5분간 끓이거나 봉지 째 7분 간 중탕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캠핑장에서 손쉽고 빠르게 든든한 아침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혜정의 일품 소한마리탕'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북미산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 '엑셀비프(Excel)'의 갈비와 빅마마로 알려진 요리연구가 이혜정의 진한 비법 육수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 '엑셀 비프'는 국내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점유율의 37%를 차지할 정도로(2018년 5월 미국 PIERS 리포트 기준) 한국에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고품질 소고기 브랜드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가정간편식 전문업체인 진한식품이 제조했으며, 보관성을 높인 포장 용기로 실온 보관이 가능해 캠핑장에서도 보관 환경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편리하다.

대상 청정원 '안주야(夜)'는 서울 대표 맛집의 특별함을 담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맛집의 안주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다. 서울 대표 맛집인 논현동 실내포차 안주 스타일을 콘셉트로 맛집의 조리법에 청정원의 전문성을 더한 간편식이다. 출시 2년 만에 누적판매량 1500만개, 누적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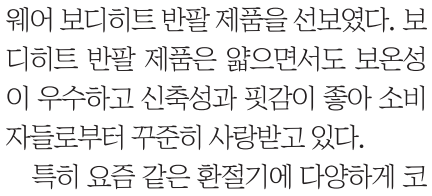
'안주야(夜)'는 다양한 인기 맛집의 음식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 특징이다. 막창, 닭발, 곱창 등의 제품에 불에 구운 맛을 내기 위해 직접 불을 쏘는 직화공정을 설계하고, '데리야키훈제삼겹' 제품은 훈연공정을 적용했다. 볶음 요리는 커다란 솥에서 갖은 양념과 향미유 등을 사용해 볶는 공정을 도입했으며 해동, 전처리, 가열 등의 공정을 재료별로 최적화해 설계함으로써 제품의 주원료인 원물 본연의 맛을 살려냈다. 특히 대상의 60년 조미 노하우를 살린 특제 소스와 양념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을 구현했다.

신세계푸드가 선보이는 캠핑용 가정간편식인 '순살 닭다리구이'는 닭다리살 꼬치구이, 철판구이 등 바비큐 재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다. 지난 4월부터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이후 5회차 방송까지 매회 6000세트 이상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 3만3000세트, 매출액으로는 20억 원을 기록했다.

통 닭다리살을 오븐에 조리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기름을 뺀 치킨 스테이크의 맛이 특징인 신세계푸드 '순살 닭다리구이'는 소금구이 맛과 매콤한 맛 두 가지다. 소금구이는 소금과 후추 간에 로즈마리와 월계수 등 허브양념을 더해 담백함이 특징이다. 매콤한 맛은 올반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비법소스에 청양고추향을 더해 알싸한 맛을 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캠핑장에서도 제대로 된 음식을 간편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가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캠핑족의 가정 간편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BYC 보디히트. /BYC

쌀쌀해진 가을 날씨 활용도 높은 제품 인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패션업계도 본격적으로 가을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능성 이너웨어부터 방풍, 방수 기능을 겸비한 자켓 등 체온 보호를 위한 가을 패션 아이템들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가을은 체감상 주기를 짧게 느끼는 계절인 만큼 활용도 높게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다.

BYC는 환절기에 적합한 기능성 발열 웨어 보디히트 반팔 제품을 선보였다. 보디히트 반팔 제품은 얇으면서도 보온성이 우수하고 신축성과 핏감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하여 준외의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보디히트는 광발열 기능의 솔라 터치 원사를 적용해 신체나 대기 중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바꿔 보온성을 유지하는 발열 웨어다. 이 중 보디히트 반팔 제품은 일교차가 커지는 간절기나 긴 소매 제품의 착용감을 답답해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블랙야크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마모트'는 후디형 스웻셔츠 2종을 선보였다. 마모트의 '코스탈후디'와 '마모트후디'는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 후디형의 캐주얼한 스타일로 일상에서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이나 운동 시에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흡습속건 기능성 소재인 '퀵 드라이'를 적용,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건조시간을 단축해 체온유지에 도움을 주며 쾌적함을 제공한다. /김민서 기자

'밥맛'의 비결, 햅쌀 관리 잘 하는 법은?

맛·영양 유지 위해 보관법 중요
습기·직사광선·냄새 신경써야

홈즈 탈취탄 냉장고용. /애경산업

추석 이후 고향에서 갓 수확한 햅쌀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햅쌀은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맛과 영양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애경에스티는 "햅쌀의 맛과 영양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특히 습하고 더운 여름철 벌레가 많이 생겨 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과 겨울철에도 실내온도가 높으면 쌀벌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계절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햅쌀 보관시 피해야 할 3가지 직사광선, 습기, 냄새

쌀이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빠르게 건조돼 금이 가고 그 사이로 전분이 빠져 나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쌀은 흡수력이 강해 수분을 머금게 되면 금방 눅눅해질 수 있으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쌀을 퍼낼 때는 젖은 도구 사용을 자제하고 패트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냄새관리가 중요하다. 햅쌀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10일 정도가 적당하며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보관 시에는 각종 음식 냄새가 쌀에 배일 수 있으므로 전용 탈취제를 이용해 냉장고의 불쾌한 냄새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탈취탄 냉장고용'은 일반 숯보다 탈취기능이 뛰어난 비장탄을 사용해 냉장고속 각종 음식물 냄새를 효과적으로 잡아 준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쌀벌레는 사전 예방이 중요

대표적인 쌀벌레인 쌀도적은 1년 이상 생존하며 한 달에 300~800개의 알을 산란해 생존율과 번식률이 뛰어나고, 화랑곡나방은 햅쌀의 단백질과 비타민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쌀벌레들은 쌀 안쪽에 알을 낳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쌀벌레 예방법으로는 통마늘이나 말린 붉은 고추를 쌀과 함께 보관하면 된다. 통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말린 붉은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쌀벌레 예방에 도움을 주며 쌀 20kg 기준으로 통마늘과 말린 붉은 고추를 3~4개 쌀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벌레퇴치에 탁월한 전용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는 겨자추출물 등 미국 FDA에 등록된 100%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졌으며 쌀도적, 화랑곡나방 등 쌀벌레 퇴치에 효과적이다. 또한 곰팡이 방지 성분이 함유돼 사계절 내내 쌀의 고유의 맛과 영양 유지에 도움을 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100일… 홈플러스 매장 방문 '껑충'

문화센터 수강생 전년比 47%↑
저녁 6시 이후 강좌 120% 상승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고 있는 고객.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8일 기준 시행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홈플러스 문화센터 가을학기에는 저녁시간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강좌 수강생이 전년 대비 47% 이상 늘었다.

요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 강좌는 물론 드럼, 바이올린, 캘리그라피, 수채화 등 힐링, 자기계발을 테마로 한 강좌를 찾아 수강하는 직장인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평일 저녁 6시 이후 강좌 신청율은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직장인들의 신규수강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30 젊은 직장인 문센족을 공략한 이색강좌가 단연 인기다. 개인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강좌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미니멀라이프 수납, 재테크, 비즈니스 스피치 등 직장인 관심분야를 주제로 한 이색 강좌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강좌의 경우 개설 하루 만에 등록이 조기마감 될 정도다. 평일 저녁시간대 아이와 엄마를 위한 베이비 강좌를 신청한 워킹맘은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기존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듣는 강좌는 주로 주말에 집중돼 있었지만, 눈치보지 않고 정시퇴근하는 분위기 덕분에 평일 저녁 강좌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되면서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듣는 주말 베이비 강좌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탐앤탐스

필리핀서 '파시그'점 오픈

탐앤탐스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지역에 필리핀 9호점 '파시그(PASIG)'점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마닐라시는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최대 도시로 문화와 산업의 핵심이자 경제의 중심지다. 탐앤탐스 파시그점은 학교와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직장인과 학생들이 주 고객이다. 또 주변에 국제 학교가 자리해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위해 이곳에 온 한국인들도 탐앤탐스 파시그점을 찾고 있다.

탐앤탐스 파시그점은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 검증된 탐앤탐스의 대표 메뉴 프레즐과 허니버터브레드를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오븐에 구워서 제공한다.

/박인웅 기자

김제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김 민 소장의

탕탕평평

방송인 김제동씨의 KBS출연료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 주 4회 방송이면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인 셈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진행자에게 지나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KBS는 올해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다. 또한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 시청률은 2% 안팎이고, 20~40대 비교적 젊은 층은 시청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자는 이런 팩트가 전적으로 KBS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정치권과 관련이 되어있고, 김제동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등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첫째, 김제동씨는 방송인인가 정치인인가 폴리테이너(politainer)인가. 폴리테이너라는 표현은 김씨에게는 극히 고급진 표현이다. 그럴만한 격이 절대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김씨는 권력에 빌붙는 전형적인 방송인이다. 진보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선동정치를

정치인도 아닌 인지도 있는 방송인이 대신 해주니 진보정권에게 김씨는 참 좋은 사람일 것이다.

셋째, 연기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보면 필자는 솔직히 역겹기까지 하다. 그의 모든 행보는 척에서 척으로 일관한다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은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이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이다.

필자는 정치를 전공하고, 정치권에서 종사했고, 현재도 정치와 관련된 일들만 해오면서 김제동씨의 행보를 보면 때로는 이미 수위를 넘었다는 염려와 동시에 극단적인 거부감이 들곤 한다.

방송인으로서도 컨텐츠가 불분명하니 특정 정치권을 옹호하고 충성하는 일명 '삐끼'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치논리와 이론도 없고 무조건 선동만 한다. 서민들 운운하며 그 정도 출연료를 받아 챙길 때 그 분은 분명 일말의 거리낌과 죄책감이 있어야만 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표리부동한 컨셉으로 먹고 살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은 가상하다.

본인이 정치할 역량은 없고, 전업 방송으로 성공하기에는 정확한 포지션과 컨텐츠가 애매하고, 입은 살아있으니 그가 택한 전략은 지금의 그런 전략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일 것이고 그것을 아주 잘 판단했다는 생각은 든다.

선동은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보주의자이다.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표리부동 아닌가. 서민과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면서 실제로는 계급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권력을 얻게 되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누구보다 더 부패하고 파렴치한 것. 한마디로 김제동씨는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표상이고 민낯인 셈이다.

적자인 공영방송이 비상식적인 출연료를 낭비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변화해야 할지 난감하다. 분명히 말하는데 필자는 과거 진보 대통령과 보수 대통령이 집권 시 가장 최측근에서 각각을 지켜보며 일 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세상의 이슈와 실제 속내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김제동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가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선동하면서 그 국민들의 혈세로 제공되는 수신료를 가지고 그런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할 가치도 없지 없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장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음 8월 29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특히 주의. **60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2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8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큰 원망을 듣게 된다.

49년생 상대방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한다. **6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3년생** 죽순은 비 온 뒤에 더 잘 자라니 역경을 잘 견디자. **85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

5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방황하는 날. **62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하던 대로 계속 전진. **74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온다. **86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5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63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이 순조롭다. **75년생** 자식이 보물이니 아파도 보듬어라. **87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본다고 없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세탁.

52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64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8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

53년생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야 한다. **65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 **77년생**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새벽을 맞을 수 있다. **8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54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66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78년생** 쥐띠 동료의 조언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 **90년생** 내키지 않은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

55년생 비상금을 풀어야 할 때이다. **67년생** 결혼은 둘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이다. **79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91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6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68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이다. **80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9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57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 의외의 복병이 있다. **69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1년생** 멀리서 오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93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7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2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다. **94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59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7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라. **83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95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니 바른 사고를 지녀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9	5	6		
				1				
9			2		4			8
2		6		7		5		4
8	4		9		2		7	6
1		7		4		2		3
5			6		7			1
				8				
		1	5	3	9	8		

					5	9		
2					8		4	7
				7		6		
	2	3		5	9			4
	1		6		7		8	
4			2	3		7	5	
		2		9				
1	9		5					2
		4	3					

스도쿠 정답

7	8	4	3	9	5	6	1	2
3	6	2	7	1	8	4	5	9
9	1	5	2	6	4	7	3	8
2	9	6	1	7	3	5	8	4
8	4	3	9	5	2	1	7	6
1	5	7	8	4	6	2	9	3
5	3	8	6	2	7	9	4	1
6	7	9	4	8	1	3	2	5
4	2	1	5	3	9	8	6	7

6	4	7	1	2	5	9	3	8
2	3	1	9	6	8	5	4	7
8	5	9	4	7	3	6	2	1
7	2	3	8	5	9	1	6	4
9	1	5	6	4	7	2	8	3
4	6	8	2	3	1	7	5	9
3	8	2	7	9	4	6	1	5
1	9	6	5	8	4	3	7	2
5	7	4	3	1	2	8	9	6

문제 제공= 보누스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대상화

어둠 속에서 하늘이
내밀어 준 손
힘든 순간들마다 큰
힘이 되는…

/고홍곤 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印尼 'G20재무장관 회의' 등 참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8 IMF·WBG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7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해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 금융안정 과제 등의 안건에 관해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와 논의한 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상호 금융협력방안,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상황 등에 관해 의견도 나눌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중기중앙회-안성경찰서, 외국인근로자 보호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 안성경찰서와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안성에 있는 중기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연평균 2만5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한국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취업교육팀장(왼쪽)과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인사

◆예금보험공사 ◇전보 △정리총괄부장 장진영 △금융정리부장 이병재 △채권관리부장 심재만 △혁신경영실장(내정) 김홍태 △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 소방청 대변인 조선호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음

▲ 이윤종씨 별세, 이규황(청주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씨 부친상=5일 오후 11시 30분, 청주하나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43-270-8400

▲박쌍용 씨 별세, 박철우(성주그룹 MCM 수석본부장)씨 부친상=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2-2258-5940

▲ 김종열씨 별세, 광수(한국일보 정치부 기자)씨 부친상=7일 오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9일, 02-440-88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49호

민선 7기 '100일'… 경기 지자체 키워드는 복지·위민·소통

지자체, 미래 로드맵 앞다퉈 내놔
추경예산 거의 통과… 행보 '훈풍'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경기 광역·기초단체와 교육청 체제가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석달여간 도내 지자체의 행보를 관통한 주요 키워드는 '무상복지 확대, 참여민주주의 강화, 위민정책 확대'로 요약된다.

임기 4년을 채워갈 밑그림을 그린 지자체들은 임기 초반 지역의 미래 로드맵을 앞다퉈 내놓아 지역 실정에 맞게 제대로 뿌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 확대

민선 7기 출범 전 경기도정의 성패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성남형 복지'가 도 전역에 제대로 안착할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었다.

지난 100일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3대 무상복지공약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 기간으로 평가된다.

임기 초기 도의회와의 협치 속에 이 지사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공약 예산으로 불린 1차 추경예산도 대부분 사업비가 원안 통과돼 도 행보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안성병원은 술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 /연합뉴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지역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급은 일찌감치 확정됐다. 고교 신입생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만 남았다.

도는 이 지사의 공약인 '생애 최초 국민연금',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위민정책 확대

경기도와 수원, 용인, 군포 등 도내 주요 기초단체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연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에 안양시 730여명, 수원시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명, 군포시 200여명 등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각 지자체는 예상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도는 이달부터 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들어갔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다 보니 환자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참여·소통 강화

지난 7월 취임한 민선 7기 지자체장 중 상당수가 시민과의 소통, 주민의 행정 참여 확대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공약 중 하나가 '주민 청원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원하면 각 지역 단체장이 답변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5만명 이상 청원하면 답변하는 '경기도 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성남시는 5000명 이상 청원에 답하는 청원 게시판 운영을 이달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통하면 해답이 나오고 대화 속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범 100일 된 민선 7기 단체장들이 4년 임기 동안 어떻게 미래 로드맵을 실현해나갈지 행보에 주목된다.

/경기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광주·전남 관광 할인카드 '남도패스' 판매

숙박·교통·관광 통합 할인 제공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교통·관광시설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남도패스'가 발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중순부터 통합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남도패스는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교통, 관광시설 통합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결제형 선불카드다.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 렌터카 서비스 등 최대 50%까지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속철도(KTX) 주요 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면 KTX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관광지, 숙박시설 등 80여 곳의 카드 가맹점에서도 평균 30% 수준에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순천 승마장 등 4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양 시·도는 내실 있는 할인가맹점을 내년에는 2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코나아이㈜와 협력해 전국 코나카드 할인가맹점인 스타벅스, GS25 등 260만 매장에서 즉시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도패스는 앱카드와 실물카드로 발행된다.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남도패스 카드는 광주·전남지역을 더욱 가깝고 실속있게 여행하는 데 필수 수단이 될 것이다"며 "이용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중일 기자 raser506@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정조대왕

'2018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렬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을 출발해 팔달문을 지나 융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 행남사~삼진물산 진입도로 개설 추진

예산 15억 확보… 도로개설 공사 박차

목포시가 행남사~삼진물산(산정농공단지)을 연결하는 도로(길이 510m, 폭 15m) 개설 사업(총사업비 42억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 1987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2012년 행남사 입구 일부 50m 도로가 개통됐으나 나머지는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는 올해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행남사~세안병원 1공구 구간(길이 166m)의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한다.

국도1호선인 고하대로는 목포대교 개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하면 차량 통행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 고하대로에서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북항의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먼 거리를 통행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고하대로 교통량 분산 등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공구 구간을 우선 준공하고 잔여 구간(길이 344m) 도로개설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광주시 감사委, 컨설팅 감사 16건 적발

설계·시공 부적정처리 위반사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에 시공 중인 대형공사장과 준공된 현장 위주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와 시공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시 본청(환경생태국) 1억원 이상과 자치구 1000만원 이상 규모의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구 쌍촌동 사면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여건과 다르게 조사 보고해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108m를 폐지·결정 ▲송화마을 탄소저감 공공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법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구조 변경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서 12개 공종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 또한 ▲광산구에서는 관급자재인 태양광 설비를 제작·구매하면서 납품기한이 지났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동구 다목적체육관건립 공사도 당초 설계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2억원 가량의 고가 소나무를 심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시정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5억5500만원의 재정상 처분(회수 및 감액)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했다"며 "올 하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한 시공 위주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

2호선 공론화 업체 선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전 과정을 수행할 업체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전 과정을 수행할 업체로 ㈜마크로밀엠브레인·(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과 3억7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론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론화지원단(시민소통기획관)이 제안서를 제출한 3개의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정량적 지표, 정성적 평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의 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마크로밀엠브레인·(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앞서 공론화지원단은 9월18일부터 28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하고, 28일 기술제안서를 받아 10월1일 기술평가와 2일 가격평가를 종합하는 절차를 거쳤다. /광주=오중일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2020 광역도시계획 -

여의도 면적의 83배 그린벨트 해제 예정!

- ▶30만㎡ 이하 GB해제권한 국토부 → 시도지사에게 부여
- ▶주택 100만호 택지공급 위해 GB해제 검토중
- ▶국토부, 전수조사 중...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허용-
- ▶정부의 GB정책 - 환경보전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 추진
- ▶중소규모의 GB는 지자체 자율 해제 허용 방침

➡ **전체면적의 GB가 85.5%인 의왕시, 최대수혜 예상**

택지공급,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풀 수 밖에 없다!!

– 과천·판교·평촌을 잇는 주거 삼각지 –

신도시 도로접 토지매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에 접한 그린벨트 임야

– 성공투자 포인트 –

- ▶신도시 1차 설계시, 「단독주택 용지」에 포함되었던 지역임.
- ▶신도시(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8~10m 도로를 접하고 있음.
- ▶경사도가 없는 평지수준의 토지로 산림 훼손이 심한 낮은 임야임.
- ▶도로, 상하수, 통신 등 기반시설이 매각지 앞까지 들어와 있음.

강남 15분(청계 IC 600m), 백운호수 인접

네이버에 학의동 산100-2 검색

【단독 매매 가능한 지분등기 / 위치공증서 발급】

지분투자로 샀는데 잘못 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 행사/ 다른 사람에게 동의없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 ▶위치공증 인증서 및 매수인간의 토지사용 합의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 매각지는 신도시 1차 설계시, 도시용지 범위에 포함 되었던 임야로 신도시가 완성 후, 지가상승은 물론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길이 뚫리면 돈이 보인다

"명품은 명품값을 한다~" 수도권 그린벨트 중 가장 뛰어납니다!

매물이 없다! ※주변시세 : GB 전답 3.3㎡당 200~300만원, 건축 가능한 토지 800~1,200만원 선.

인프라 포인트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신도시 개발호재 (2020년 완성)
- ▶청계IC 이용, 강남 10분대 진입 (양재~과천~봉담 고속화도로)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청계역」 1km (2024년 개통예정)
- ▶백운로·의일로 4~6차선 확장~제2경인고속(북청계 연결)
- ▶의왕 백운~오전동 4차선 신설도로 (2020년 개통예정)
- ▶스타필드 규모의 롯데복합쇼핑몰 (10만㎡) 입점예정 (2020년)

계약금 10% 우리은행 1005-303-474246 (주)백운디앤씨

▶청약금→ 필지배정 → 현장답사 및 계약금→ 잔금납입 → 책임등기·소유권 등기이전

(주)백운디앤씨

책임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신홍제

031)462-909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053호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종합]
'여혐' vs '남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범죄의 불씨
08

[라이프]
식품업계
캠핑족 겨냥
간편식 '집중'
12

이른 새벽 푸른 바다로 나가 낚시를…

"고성부터 연평도까지… 현대판 '자산어보' 만드는 것이 꿈"

새벽을 여는 사람들

어류 칼럼니스트 김 지 민 씨

EBS 성난물고기 태국편 촬영 중 거대 자이언트스네이크헤드 피시를 잡은 김지민씨.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주섬주섬 낚시도구를 챙겨 차 트렁크에 넣는다. 아직 어둠조차 가시지 않은 새벽 길을 달려 서해 바다에 도착하면 푸른 바다가 반긴다. 갯바위나 섬으로 가서 하는 낚시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한다. 여름에는 새벽 4~5시부터 아침 9시까지가 최고의 황금 시간대이다. 이때는 사람처럼 물고기도 아침 밥을 먹는 식사시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입질의 추억'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김지민씨의 조행(釣行)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주도, 거제, 통영 등 남쪽지방이 많아요. 전날 미리 출발할 때도 있는데 오후 출발해 현지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2인 1조로 가는 게 좋은데 전에는 부인과 같이 갔지만 지금은 일본의 유명한 찌 만드는 곳 대표와 다니기도 하고 블로그 독자 중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과도 같이 다닙니다."

좋아서 하는 낚시지만 쉬운 건 아니다. 뱅에돔, 참돔 등 갯바위낚시를 하게 되면 서울 사는 사람은 현지에 가는 자체가 일이다. 10만~20만원 배삯까지 주면서 하니 거의 밤새도록 하는 조업수준으로 하게 된다. 만일 고기가 안잡히면 해질 때까지 하기도 한다. 갯바위 낚시는 정오까지 하는 오전반 외에 정오에 나가서 해질 때 들어오는 오후반도 있다.

"확률이 있는데 5번 정도 낚시를 나가면 1번은 만족, 1번은 평타, 나머지 3번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수확이 별로 없으면 당연히 실망하게 되죠."

일반적인 낚시꾼이라면 그냥 그날 낚시를 끝내면 된다. 그러나 김지민씨는 약간 다르다. 그는 이미 방송에 출연하고 책을 내며 유명 포털에 콘텐츠도 공급하는 '어류 컬럼니스트'다. 그의 글을 기다리는 많은 독자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

"고기가 안잡히면 뭔가 재미있는 상황을 최대한 사진으로 담아서 살려야 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큰 게 잡힌다든가, 특이한 고기를 잡든가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죠. 그런 게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김지민씨는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했는데 블로그를 통해 취미로 올리던 낚시글이 생각보다 인기가 있어 전업 블로그로 나서게 됐다. 하지만 낚시만 가지고는 대중적으로 한계가 있는 소재였다.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소재를 찾다가 생선을 포함한 어류를 조합시켜 써보자고 생각했다. 마침 낚시 나가면서 접하기 어려운 어류를 접하니 그 생태나 습성을 좀더 잘 알게 되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수산시장을 다니거나 배가 들어오면 그걸 취재하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김지민 씨는 현장 방문은 기본이고 직접 낚시까지 하니 생생한 정보 획득이 쉬운 것이다. 이 때부터 그는 어류 컬럼리스트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수산강국이라는데 그만한 인프라와 데이터도 없어요. 몰라서 포털을 검색할 때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와요. 가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올라온 수산물 글도 틀린 게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본쪽 박사논문까지도 읽어서 참조합니다. 우리가 신뢰도 있는 수산물 전문 글이 없기에 이쪽은 블루오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블로그 통해 올리던 낚시글 인기
직장 그만두고 전업 블로거로 나서

한국 수산 인프라·데이터 부족해
직접 관련 책 내고 자문·인터뷰도

부조리한 거래 지적 바른 글 올려
잘못된 관행 없애는 것 보람 느껴

출조할 때의 김지민씨.

8년째를 맞은 그의 활동은 점점 결과를 내고 있다. '우리식탁 위의 수산물'이란 책을 내게 되었으며 낚시와 수산물에 관련된 각종 방송에 자문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MBC 어영차바다야를 비롯한 여러 TV 방송에 출연했으며 지상파 프로그램 '성난 물고기'에서 연예인과 같이 하는 방송도 찍게 되었다. 김지민 컬럼니스트는 그 때를 인상깊었다고 회상한다.

"사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참치나 새치처럼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생생한 어류 컬럼니스트 자문이 필요해서 같이 나갔죠. 몰디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오지를 돌아다니며 고생도 하고 고기도 잘 안잡혔지만 해외 원주민과 보디랭귀지를 하며 재미있게 소통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객관적인 수산물 글을 쓰려다보니 이해당사자와의 충돌도 있다. 김 씨가 수산시장에 취재를 가면 상인들이 경계한다. 사진 찍거나 물어보면 싫어하고 쫓아내려 하기에 일부러 관광객인 척 하면서 사진찍고 모르는 척 물어보면서 생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런데 집에 와서 글로 부조리한 상거래를 지적하면 관련 상인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메인에 노출된 글을 보게 되고 논쟁이 벌어진다.

"수산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얼마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한번 대대적으로 방송이 나가면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성어를 다금바리로 많이 속여파는데 가격이 2~3배로 차이나죠. 이제는 이런 횟집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만산 싸구려 민물고기인 틸라피아를 돔이라고 속여 내놓는 일이나 베트남에서 양식된 베트남에서 양식된 팡가시우스 메기를 참메기살로 속여 회로 먹는 일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김지민씨는 어류 컬럼니스트로 바른 글을 올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없앴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얼마 전 그는 민속박물관에서 한국인의 식생활 관련된 백과사전의 어류 부분 일부 집필을 맡았다. 5월에 시작해 6월말에 끝났고 올 겨울에 백과사전이 나올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세 번째 저서인 '꾼의 황금레시피'가 출판 예정이다.

그가 이런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제 궁극적 목표는 현대판 '자산어보'를 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수온도 변하고 양식업도 잡히는 물고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 종류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기존 수산물 서적은 80~90년대 옛날 데이터라서 현 실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현대적으로 해석해 수산물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한 어류컬럼니스트란 명칭에 알맞게 그의 꿈은 무척이나 원대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에서 사계절에 따라 잡히는 수산물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강원도 고성부터 시작해서 포항과 부산, 목포와 연평도까지 전부 다닐 겁니다. 조업하는 배도 타고 재래시장 상인과도 이야기해보면서 실사를 해보면서 자료를 모으려고 합니다. 10~15년을 내다보고 낚시도 틈틈히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한 권의 책에 집약할 생각입니다."

1814년 실학자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는 200년이 지난 오늘도 당시 어류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서술을 담은 사료로 취급받고 있다. 어류컬럼니스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김지민 씨가 인생을 걸고 만드는 현대판 자산어보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지 기대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